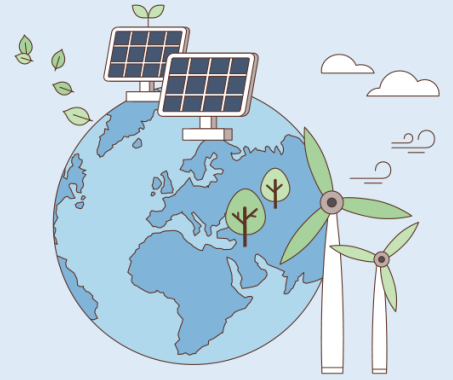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2050 탄소제로 ①] 연간 배출량 7억톤... 1차 24% 줄여야 *뉴데일리경제*
- '탄소중립' 대장경 나선 韓기업들 " R&D·세제 지원 절실 " 호소 *머니투데이*
- 'ESG 경영' 최태원 하반기 테마는 환경 *서울신문*
- 농심, 친환경 위해 라면 포장지 줄인다 *국민일보*
- '작년 1.3조' 탄소배출권 시장 해마다 커지는데...기업들은 '쓴웃음' *머니투데이*
- 철강산업, 수소·재생에너지와 결합 '탄소 줄이기' 시도 *글로벌이코노믹*
- 아마존 등 빅테크가 태양광·풍력 에너지 싹쓸이하는 까닭은 *중앙일보*
- 콘트리트 업계,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아시아경제*
-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또 불법 배출 '조업정지' 위기 *헤럴드경제*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공정위, 일감 몰아준 기업에 시정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 '사익편취' 규제에 놀란 아모레, 지배구조 바꿨다 *더벨*
- 현대차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완료...미래사업 '박차' *서울파이낸스*
- '이재용가 지배' 웰스투리에 일감 몰아준 삼성에 2349억 과징금 *이투데이*
-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3조4400억에 인수 *매일경제*
- 엔씨소프트, 게임업계 ESG 경영 이끈다 *머니투데이*
- 금융위 반년째 고심...라임 관련 CEO 제재 경감 '무게' *한국경제TV*
- 효성 조현준의 '수소 승부수'... 세계 최대 수소공장 세운다 *서울신문*
- 트러스톤운용, 태광산업 '주주행동' 가능성 열어놨다 *더벨*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ESG서 'S(사회) 강화' ...소상공인 집중지원 銀 *파이낸셜뉴스*
- 삼성전자, 잇따 '노조 이슈' S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더벨*
- "#쿠팡탈퇴" 하루에 17만건... '로켓 속도' 불매운동 *매일신문*
- 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 이번에도 안전불감증 가능성 *서울신문*
- 상장 앞둔 크래프톤...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시끌' *e대한경제*
- 나이스그룹, '직장 내 괴롭힘' methyl 상사에 '경고' 처분 *파이낸셜뉴스*
- '시험 못 치면 기본급 삭감' 포스코CT 새 인사제도 '시끌' *비즈한국*
- "정보화 격차 해소" SKT, 디지털 사각지대 전담센터 개소 *헤럴드경제*
- 서울고법 " 포스코의 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 ", 포스코 2심도 패소 *비즈니스포스트*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2050 탄소제로'... 한은 " GDP 최대 7.4% 뒷걸음질 할수도 " *이데일리*
- [국책은행 ESG] 금융권으로 확대된 ESG *아주경제*
- 한전, 英 최대 자산운용사서 펀드 3년 연속 제외... " ESG 미흡 " *시장경제*
- ESG 공시 의무화, MS-구글은 반대 *한국경제*
-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석탄연료 쓰는 기업 주식 속속 처분 *조선일보*
- 일본, 기업지배구조 공시에 환경정보 추가 *내일신문*
- 노르웨이 연기금, 인도 최대 항만업체 투자 철회... " 미안해서 이익 우선시 " *뉴시스*
- " 재무제표에 ESG지표 도입 임박...보여주기식 공시 안통한다 " *한국경제*
- [ESF 2021]ESG 안 지키면 주식 다 판다...은행 대출도 힘들어 *이데일리*

ESG FOCUS UPDATES

그린 뉴딜 평가지표 개발의 방향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06.25

E

- 한국 그린뉴딜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며, 일차 리 창출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함께 도모하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인프라 녹색전환, 친환경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제시함
- 단 정부 정책 실적 측정에 대한 조급함과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그린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색뉴딜전략의 계량적 평가지수 성립은 필수적임. 이에 EU 및 해외원조 평가에서 활용하는 분류체계지표를 벤치마크로서 참조할 필요가 있음
- EU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는 특정 경제활동이 지속 가능한 녹색경제활동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수단으로서 크게는 4가지 최우선적인 대원칙 아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함
- 세부적으로는 7대 산업군(농림수산업, 제조업 등) 내 산업 유형마다 6개 목표(기후변화 완화, 적응, 물, 순환자원, 오염,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확인한 후 세부 측정 방법을 명시하고 67개의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여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을 선별함.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경제활동의 녹색금융지원 혹은 투자 여부가 판단됨
- 단 네 번째 대원칙인 “기술적 수준 충족” 여부는 경제활동이 각각의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의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계획 수립에서의 가장 큰 한계로 작용함
- OECD 리우 마커(Rio Marker)는 원조사업의 환경 친화도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지표로서 정부지출의 환경 친화도 평가에도 원용 가능함. 재원 조달자는 개별 지원 사업을 리우마커로 스크린하며, 유엔 기후변화협약 이해 목적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함
- 단순한 방법론, 쉬운 추적 가능성, 투명성, 유연성, 주류화 성공 집계 수단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담당자별 해석상 차이 가능성, 중복 계산 가능성, 실제 지출 규모 판단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국내 그린스탁(Green Stock) 성과와 시사점

- 우리금융그룹 21.06.23

S

- 우리금융연구소는 92개 국내 그린 비즈니스 기업(Green Stock)들로 구성된 WGSI(WFRI Green Stock Index)를 산출함. 그린 비즈니스는 전기차, 전기차 부품, 수소, 태양광, 2차전지, 풍력, 에너지 효율, 리사이클링, 기타 신재생에너지 등 9개 섹터로 분류함. 기업 수 기준으로는 최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EV 관련 섹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 WGSI(2011월=100)는 '21.5월 185.4로 2배 가까이 급등하여 같은 기간 KOSPI(51.2%) 대비 아웃퍼폼 달성함
- 과잉투자 우려가 있으나 WGSI PER은 35.7배로 닷컴버블 당시 최고치가 232.1배이었음을 감안하면 순이익과 주가 간 이격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92개 종목 가운데 연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비중은 78.3%로 국내 비금융 상장기업 전체(55.4%) 대비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 주가 상승률을 살펴본 결과, 주가 상승률은 유사하였으나 PER의 경우 1조원 이상 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454.1배). 아직까지 신사업을 통한 이익 실현 규모는 작으나, 향후 자본력을 기반으로 그린 비즈니스 등 ESG 투자 여력이 높다는 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반면 1천억원 미만 기업은 당기순손실로 인해 PER이 음(-)의 값을 보임
- 수익성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리사이클링 섹터, ROE는 2차전지 업체가 우위를 보임
- 재무안전성은 기존 사업에서 안정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기업들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티씨케이, 나노신소재, 토텍, SNT모티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장비에서 그린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대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분류됨

언론에 비친 우리나라 기업 지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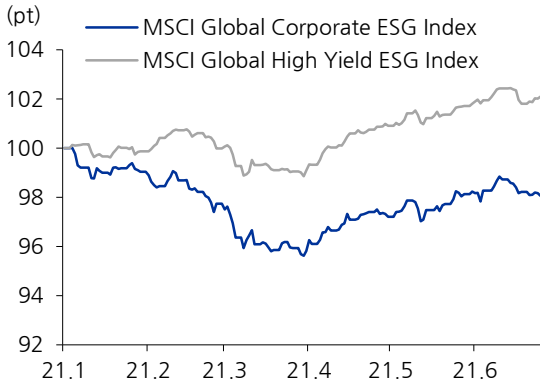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06.25

G

- 우리나라에 기업지배구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시점은 1993년 10월이지만 아직까지 기업지배구조는 언론매체에서 여러 의미로 혼용 및 오용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관련 개념이 왜곡 보도되고 있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 오늘날 통용되는 기업지배구조의 의미는 “경영자의 대리인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기제”이지만 많은 경우 “대주주에 의한 회사 지배 양태”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비슷하게 경영권이라는 표현 또한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맥락에서 “경영권 분쟁”, “경영권 방어”, “경영권 프리미엄” 등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음으로 더 상위의 의미인 지배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함
- 최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수감으로 크게 대두된 화제로 지배주주의 부재에 따른 기업의 위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힘들며 검증하더라도 뒷받침되지 않음. 지배주주의 법정 구속 시점 전후의 주가 반응(2000년 ~2018년)을 살펴보면 사건일 전후 15일 주가 하락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쿠팡 해의 상장과 관련하여 나온 국내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부재에 관련된 내용 또한 언론에서 잘못되게 보도하는 내용 중 하나임. 국내에서 2012년 상법 개정 이후 이익 배당, 잔여재산분배에 우선권이 전혀 없으면서도 의결권이 통째로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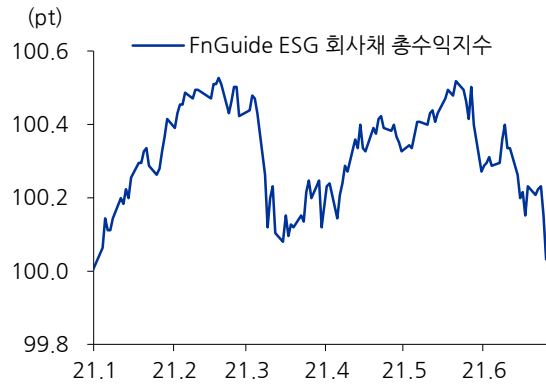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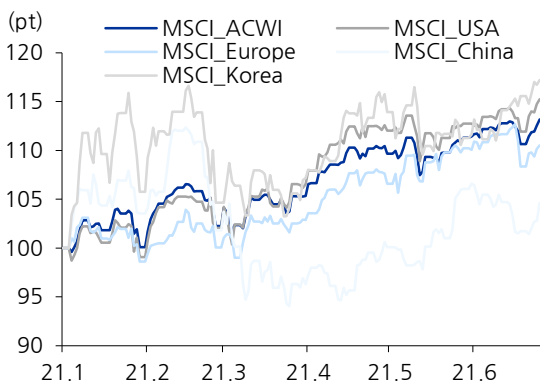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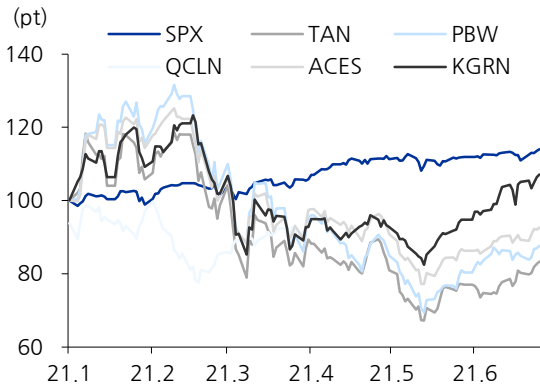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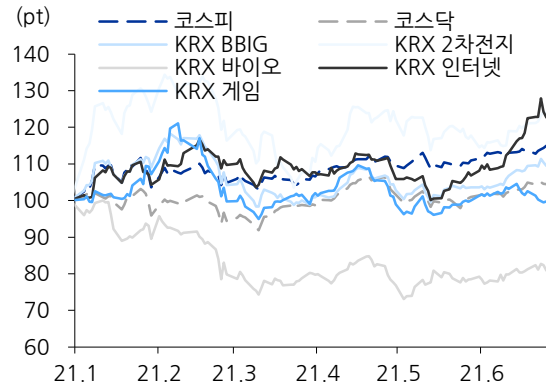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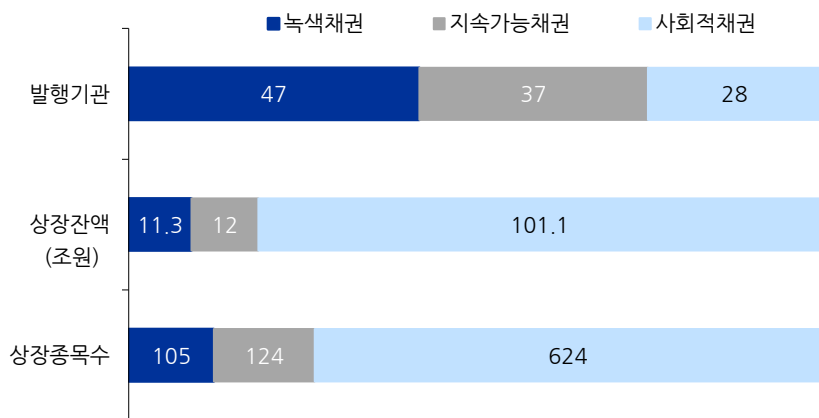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녹색채권	팬오션 21(녹)	2021/06/25	2.15400	50,000
지속가능채권	롯데캐피탈 415-1(지)	2021/06/25	1.70000	100,000
지속가능채권	롯데캐피탈 415-2(지)	2021/06/25	1.89000	110,000
지속가능채권	롯데캐피탈 415-3(지)	2021/06/25	2.17500	20,000
지속가능채권	롯데캐피탈 415-4(지)	2021/06/25	2.90000	1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32(사)	2021/06/25	1.99400	100,000
지속가능채권	전북은행 25-6 이 1 갑-22(변)(지)	2021/06/23	0.93000	8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3(1-1)(사)	2021/06/21	1.03300	158,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3(1-2)(사)	2021/06/21	1.30000	18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3(1-3)(사)	2021/06/21	1.46700	23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3(1-4)(사)	2021/06/21	1.92700	50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3(1-5)(사)	2021/06/21	2.12200	26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3(1-6)(사)	2021/06/21	2.44000	20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3(1-7)(사)	2021/06/21	2.53500	13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3(1-8)(사)	2021/06/21	2.52000	3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3(1-9)(사)	2021/06/21	2.50300	20,000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3.31 기준)